

“작은 학교들의 특색있는 교육 이야기”

농어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꿈키움 작은 학교’

좋은Gyo6
나·눔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편집 교육과정부

발행인 박용희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탄소Zero’ 실천으로 종이인쇄물을
발간하지 않습니다.



SUMMARY | 요약

① 점프 UP! 이음으로 성장하는 도움닫기 학교

학교급 간의 이음 활동, 학교와 가정,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된 늘봄 이음 활동,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동네 이음 활동, 도시 지역 학교와 만나는 도-농 이음교실 활동을 통해 점프 UP! 찾아오는 작은 학교로 성장 중인 남계초등학교

② 꿈꾸며 배우고 모두가 행복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한 가로숲 Muse, 어린이 천문대, 평생 운동 파크골프, 점곡형 늘봄학교 운영으로 작은 학교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점곡초등학교

③ 단촌초등학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L),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진로교육(I),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F), 다양한 체험중심교육(E)으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단촌 LIFE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단촌초등학교

④ 生生 THEMA 교육으로 신(新)바람 행복학교 만들기

THEMA가 있는 교실 공간 설계, 자존감·공동체 역량 ON(溫)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꿈·끼UP! GO!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THEMA가 있는 체험학습을 통해 실생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는 운수초등학교

⑤ 꿈과 함께 성장한 농어촌 작은 학교

도시 학생들이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꿈과 함께 성장한 작은 학교, 전교생 80%가 관외 학생으로 구성된 ‘찾아오는 학교’의 대명사가 된 청하중학교

positive Gyo6 freecycle 2024

경북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교육 실천 이야기

점프 UP! 마음으로 성장하는 도움닫기 학교

남계초등학교 교사 이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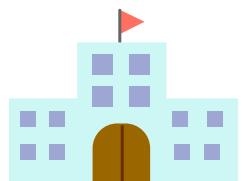


01

남계초등학교가 도대체 어디야?

구미에서 2~3번째로 큰 학교에 다니던 나는 만기를 앞두고 다음 근무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작은 학교를 가고 싶다는 내 말에, 남계초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내 말에 주변 선생님들은 놀랐다. 그리면서 왜 업무가 많은 작은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남계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첫 질문에는 웃으며 답을 얼버무렸지만 남계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있었다. “OOO(학교 옆 예쁜 카페) 옆이요!” 학교보다 카페가 더 유명한 남계초등학교는 구미시 고아읍에 위치한 1학년 7명, 전교생 76명인 6학급의 작은 학교이다.

사실 나조차도 남계초등학교를 잘 모른 채로 왔다. 도시의 큰 학교에 지친 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힐링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이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온 선도학교, 늘봄선도학교 등 운영하는 사업이 너무 많았다. 게다가 처음 맡은 연구부장이라는 자리까지.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모두 애쓰는 학교에 온 나는 이 학교를 카페보다 유명하게 만들어야겠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02

남계초, 변화가 필요해!



작은 학교가 그렇듯, 우리 학교 아이들은 1학년 때 학급 친구들이 6학년까지 함께 한다. 서로 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인관계가 다양하지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 문제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 인근 큰 학교에서 진학한 다른 친구들을 만난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과 인간관계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다. 아이들의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과 상급학교 진학 이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민하던 중 “이음” 교육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본교는 인근에 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생태환경 등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점프 UP! 이음으로 성장하는 도움닫기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어지는 학교급 간의 이음 활동, 학교와 가정,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된 늘봄 이음 활동,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동네 이음 활동, 도시 지역 학교와 만나는 도-농 이음 교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다.

03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만의 ‘이음’

‘사이 좋은 우리 사이 이음’은 학교급 간의 이음 활동이다. 병설유치원과 초등 1학년이 함께 하는 유-초 이음교실, 예비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돋는 씨앗 늘봄학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견학하며 진로 설정 및 목표 의식을 수립하는 겨울방학 도움따기 활동을 하였다. 또한 학기 중에는 초·중·고 학생이 연합한 학교공간건축동아리도 운영하였다.

‘가족 품 따뜻한 늘봄 이음’은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및 늘봄 교실 운영에 그 목표를 둔다. 본교는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아 2023년부터 늘봄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저녁늘봄교실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사랑 이음’은 학교 인근의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르고 환경 자원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봄에는 학교 앞 벚꽃길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가을에는 구미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선주의 얼 탐방 활동을 하였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에 선정되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활동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경북 도-농 이음교실’은 도시 지역의 큰 학교 학생들은 학교 시설을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작은 학교 학생들은 인간관계를 넓히고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운영하였다. 서로의 학교에 방문하고 미니 체육대회를 함께 하며 추억을 쌓았다.

이 외에도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기초학력향상 지원, 리듬체조나 양궁, 국악과 같은 특별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진로 탐색 및 특기 계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학년도 말에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담은 성장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1년의 소회를 담아 전하기도 한다.



사이좋은 우리 사이 이음
-초중고 연합 '학교공간건축동아리'



도-농 이음교실



대한양궁협회 양궁 수업

04

점프 UP! 찾아오는 작은 학교로의 성장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본교는 3년 사이 43명이 전입해 온 “찾아오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기초학력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학기 초에 8명이었던 기초학력부진학생이 10월에는 전원 구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꿈키움 작은 학교를 인증받은 남계초등학교는 작지만 강한 학교, 찾아오는 작은 학교로 성장 중이다.



꿈꾸며 배우고 모두가 행복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점곡초등학교 교사 안희진



01

사촌 마을 가로숲 옆 작은 학교

의성군 점곡면 시골 마을, 이곳에는 흔히 ‘명당’이라 불리는 영남 8명기 중 한 곳인 사촌 마을이 있다. 일명 서림(西林)이라고도 불리며 마을의 서쪽 들판을 가로질러 조성된 1,000m의 방풍림 옆에 점곡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학교 옆에는 퇴계



이황의 제자 김사원이 학문을 닦고 후배들을 기르기 위해 세운 건물이자 한석봉이 혼판을 써준 만취당, 창의부터 해산까지 62일 동안 항전한 의병 투쟁을 알리기 위한 의병기념관이 있다. 가을철 은행나무 명소로 유명한 이 작은 학교에서는 꿈꾸며 배우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작은 학교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02

첫 번째 희망 - 가로숲 Muse



가로숲 Muse를 위한 성장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특색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수업이 진행된다. 매년 개최되는 가로숲 Muse 발표회는 다른 학교의 학예 발표

회와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아노 연주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이중주로 완성되는 성장형 프로젝트이다.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마을의 상징적인 행사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학부모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동요, 유명 연주곡, 영화 OST까지 아이들의 연주에 모든 청중이 귀를 기울이며 즐기는 점곡초등학교만의 문화 축제이다.

03

두 번째 희망 - 어린이 천문대

과학 특색교육 프로그램으로 대구 어린이 천문대와 연계한 우주 천문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1회 대구 어린이 천문대 소속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우주 천문 과학 영역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계절별 별자리, 태양과 달, 여러 행성을 천체망원경과 반사망원경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관찰한다. ‘점곡 별밤지기 달빛축제’를 올해 2회 운영하였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요리 콘테스트, 우주 천문 퀴즈대회, 단체 영화 관람, 학부모와 함께하는 천체관측 등 학교와 가정이 적극 소통하며 교육활동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04

세 번째 희망 - 평생 운동 파크골프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는 파크골프 교실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 3대가 함께 즐기는 평생 스포츠로의 목표를 위해 의성 미래교육지구,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하는 체육 특색 프로그램이다.

특히 제13회 경상북도 파크골프 협회장기 대회 초등부 1,2,3위 석권, 도전! 꿈 키움 학교장 인증제 ‘양파(Double Par)를 구하라’ 등을 통해 전국대회 입상에 도전하고 있다.

05

네 번째 희망 - 점곡형 늘봄학교

‘마을이 아이들을 키웁니다’를 모토로 운영되는 본교의 늘봄학교에는 기존 ‘돌봄교실’이라 불리는 공간이 없다.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치면 아이들은 ‘의성 군립 농촌 보육 정보센터’로 하고한다. 지역 거점형 돌봄 센터로써 맑은 하늘 공부방, 예쁜 어린이집 등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학사일정 및 월중계획과 센터의 교육계획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오후 돌봄 기능을 전담하고 안전한 하교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 외에도 다함성 점곡마을학교, 의성 미래교육지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점곡면 주민 자치회를 포함한 지역 내 여러 기관과 대구 어린이 천문대, 영진전문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점곡만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점곡 삼분지계는 점곡형 늘봄학교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2024학년도 꿈 키움 작은 학교 인증 등 여러 학교와 지역의 모범과 본보기가 되고 있다.





단촌초등학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단촌초등학교 교사 신미정



단촌초등학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단촌초등학교 교사 신미정

01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단촌 LIFE 교육

*LEARN: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

단촌초등학교는 2019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 유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매년 저출산과 농촌 지역 학생 수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학생 수 감소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때,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함께 손을 잡았고 2023년 의성군, 의성교육지원청, 행복의성지원센터 공동 추진 사업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대상 학교에 지정되면서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에는 타시도에서 전입한 4명을 포함하여 학생 수가 19명으로 늘어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꿈키움 작은 학교”에 선정되었다.



본교는 1-1-1 프로젝트 활동과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빛깔을 내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예술 강사를 활용한 다양한 음악 활동과 1인 1악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적 감수성과 어울림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는 분기별로 생일파티를 주관하며, 책임감을 기르는 활동을 한다. 지난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장점 메시지 스티커를 선물꾸러미에 붙이는 활동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였다.

*INTERESTING: 흥미, 적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다양한 체험 중심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늘봄 선도학교 운영으로 점핑 피트니스, 댄스, 자전거 타기 학교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신체활동은 물론 바이올린, 기타, 오카리나, 우쿨렐레 연주와 미술 등 예술 관련 수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얻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3년에는 의성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실내 골프장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의성인재육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으로 골프 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촌초등학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단촌초등학교 교사 신미정

*FUTURE: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AI 창의 탐구 시간을 통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를 배우며, 태블릿을 활용한 코딩 로봇 프로그래밍, VR 가상현실 체험, 로봇 축구 등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창의적인 사고와 실습 경험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늘봄학교 연계 및 의성 미래교육지구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에 참여한다. 마을학교에서는 환경 교육, 놀이 교육, 지역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데 졸업생 봉사자와의 만남으로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역 축제인 빨간 장날, 지역 어린이날 행사, 폐역이 된 단촌역에서 열린 시낭송 행사 등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각종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휴지 줍기, 꽃 심기, 어르신 돋기, 음식 나눠드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EXPERIENCE: 다양한 체험중심교육



단촌초등학교는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봄에는 제주도 체험학습을, 여름에는 도시 여가문화 체험으로 에버랜드와 한국 민속촌을 다녀왔다. 가을에는 내 고장 문화유산 탐방과 카라반 캠핑을 진행했다. 겨울에는 강원도로 스키캠프를 떠난다. 매주 지역 승마장에서 승마 체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전교생 생존수영 실습으로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02

학교의 든든한 지원군 <지역 사회>

단촌초등학교의 성장은 지역 사회의 든든한 지원으로 현실이 되었다. 지역 사회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공모에 발 벗고 나서 인근 학교와 지역 축제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전단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전입 가정을 위한 주택 마련과 청소,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도왔다. 학교는 지역 사회를 믿고 학교의 행사에 주민들을 초청하여 소통하며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는 학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 덕분에 단촌초등학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밝은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生生 THEMA 교육으로 신(新)바람 행복학교 만들기

운수초등학교 교사 김재환



고령군 운수면에 위치한 운수초등학교는 수준 높은 시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소규모 학교다. 본교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슬기롭고 창의적이며, 꿈을 키우며,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며, 심신이 건강한 어린이를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 등 운수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로운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특색교육을 통해 2024학년도 꿈키움 작은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9명에서 2024년 현재 22명으로 전교생이 증가했다.

01

특색 하나. THEMA가 있는 교실 재구성을 통한 학년별 맞춤 교실 제공

학년성에 맞는 특정 주제나 테마를 중심으로 교실 공간을 설계하였다. 교실 테마는 교육 내용, 학습 목표,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02

특색 둘. 자존감·공동체 역량 ON(溫)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가치 학교 운영

인성교육으로 체험 중심의 ‘자존감·공동체 역량 ON(溫)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책임감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03

특색 셋 꿈·끼 UP! GO!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우는 운수인 육성

학기별로 실시하는 꿈·끼UP! GO!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기초 능력 기르기, 일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들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



04

특색 넷. THEMA가 있는 체험학습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THEMA(테마)가 있는 체험 활동을 설계하여 학습자들이 몰입하고, 그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와 실생활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구 분	THEMA 체험학습	시 기
T hink	과학, 수학 체험활동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하기	4월/9월
	대가야 문화 탐방 및 박물관 체험을 통해 역사의식 및 애향심 키우기	3월
H ope	지역연계 진로캠프를 통한 미래직업 체험 및 미래 진로의식 갖기	5월
	진로체험학습을 통한 꿈과 끼 키움	9월
E njoy	SPM 교육 시스템 적용 체육활동 및 스포츠 재능 발견 (수영, 스키, 승마 등 다양한 스포츠 체험활동 실시)	3/6/ 9/12월
	찾아가는 AI 체험학습 ‘놀면서 배우는 인공지능 로봇’ 체험 프로그램	10월
M aking	메이커 데이 운영을 통한 3D 프린터 활용 메이커 교육 실시	9월
	개실마을 체험 학습 및 교내 전통 체험을 통한 전통문화 및 만들기 체험	11월
A rt	대가야 문화 체험학습을 통한 도자기 만들기 및 전통공예 체험	4월
	문화예술교육(공연 관람)을 통한 문화감수성 키우기	5월



꿈과 함께 성장한 농어촌 작은 학교, 청하중학교

청하중학교 교사 김신호



01

들어가며



농촌과 어촌이 만나는 면 단위에 위치한 청하중학교는 50년의 전통을 지닌 지역 명문 사학이었지만 2009년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다. 12학급 규모의 학교가 6학급 이하로 줄어들게 되자, 관송 교육 가족들은 농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작지만, 아니 오히려 작기에 가능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특색 사업을 시작하며, 단순한 의무교육기관의 기능을 넘어 학생들의 꿈과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모든 것이 난관이었다. 인력, 전문성, 예산, 홍보.... 그러나 15년간의 노력으로 농어촌 인구와 학령 인구의 꾸준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청하중학교는 9학급 규모로 성장하였다. 도시 학생들이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로 성장한 것이다. 이제 학생들의 꿈과 함께 성장한 작은 학교의 성장기를 소개한다.

02

예술가의 꿈을 찾아 -관송오케스트라-

농어촌에는 마땅한 공연장도, 악기상도 악기를 다루는 학원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교는 2009년 ‘학생 1인 1악기’라는 주제로 음악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의 예술적 갈망과 이상이 예상보다 높아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남아 연습을 하기도 하고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기도 했다. 음악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경험하게 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학생 오케스트라’를 꿈꿨고, 적지 않은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쳐 2014년 35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윈드오케스트라가 시작되었다. 열정을 가진 교사의 지휘와 정기연주회 및 지역 사회 연주회를 통해 학생들은 꾸준한 동기를 부여받았고, 각종 전국대회의 수상이 이어지자 예술 교육의 동력이 커졌다.

이에 2022년 현악기를 보강한 풀사이즈 오케스트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120명의 단원을 둔 대규모 학생오케스트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학교의 자랑을 넘어 지역 사회 대표 학생오케스트라로써 경북 지역의 문화 예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7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금상 수상)



2024년 제9회 정기연주회



관송오케스트라 지역 사회 연주회



꿈과 함께 성장한 농어촌 작은 학교, 청하중학교 청하중학교 교사 김신호

03

과학자의 꿈을 찾아 -관송과학탐구반



관송과학탐구반 동아리

2009년 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제공하면서, 과학동아리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탐구력과 자연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관송과학탐구반’이라는 정식 명칭과 함께 학생 과학동아리 대회에 첫 출전하여 경북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과학동아리 학생들의 서울 나들이는 시골 학생들에게 큰 동기가 되었다. 그 이후 매년 관송과학동아리는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놓치지 않고 있다.

04

학생 자체의 꿈을 찾아



본교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자치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점심시간과 자습 시간 등 짜투리 시간을 긍정적인 학교 구성원 교류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선후배 및 교우관계 개선이나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았다. 상담실에는 상담 선생님이 계시지만 학급에는 학급마다 또래 상담 동아리가 학생들을 지원하고 서로의 갈등을 조정한다. 서로(돌이-2) 칭찬하고 사과(-4)하는 애플데이(10월 24일)는 또래 상담 동아리가 10년째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대표 활동이다. 학생들이 받는 상점과 별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내 매점(관송 포레)은 인문학 동아리의 인문학 콘서트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 밴드 동아리는 자율적으로 틈틈이 연습하고 점심시간 게릴라 공연이나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풋살장과 강당에서는 스포츠 동아리도 땀을 흘리며 건강한 경쟁과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운다. 학생들의 자율성은 교사들의 기대보다 대단한 것이었다.



또래상담동아리
애플데이 활동



05

농어촌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꿈꾸며

청하중학교는 농어촌 학교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전교생 80%가 관외 학생으로 구성된 ‘찾아오는 학교’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렇기에 도시의 과밀 학급의 획일적인 교육에 대안을 찾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어촌 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나 약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유행어 ‘럭키비키’는 존립의 위기에 선 농어촌 작은 학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이다.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작은 학교이기에, 사교육과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이기에, 오히려 가능한 특색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다.